



대한국제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원님

제목 : 서철원 학회장 퇴임사

기해년 새해 회원여러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회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선 많이 부족한 제가 중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년 동안 학회 살림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쉬웠던 일, 학회장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일에 대한 경과, 학회의 2018년 성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회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퇴임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일은 학회지 정기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환규 출판이사님의 노력으로 92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 평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이환규 교수님께서 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출판이사를 맡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협조와 이환규 교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Jessup Moot Court가 참가팀의 부족으로 무산된 것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학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회장으로서 약속드렸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국제법 관련 학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제법 관련 실무자들의 학회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 3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현안 브리프를 시작하고, 김석현 전회장임이 시작하였던 국제법 현안 긴급간담회를 부활시켰습니다. 국제법 현안 브리프는 연간 1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정인섭 위원장님과 백범석 교수님, 김현정 교수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법 현안 긴급간담회는 개헌에 대비한 국제법 관련 헌법조항 개정에 대한 간담회,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하시는 김석현 전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법 관련 학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신진학자대회를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국제법학자 대회도 관련 학회와 공동개최할 계획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ILA, 서울국제법연구원 등과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동개최를 하면 이들 학회가 각 분과를 맡는 형식을 구상하였는데, 현재 학회에 있는 국제법 분과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미리 이런 문제를 정리하여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법 관련 실무자들의 학회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국제법학자대회에 참여한 것, 변호사들의 의무교육 강좌에 국제법을 포함시키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의무교육 강좌에 국제법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학회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관련 직무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집행부는, 2017년 집행부에서 시작한 학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보관하던 자료들을 전자문서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료는 잘 보존되면서, 학회사무실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문서화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보완은 차기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 작업과 자료 전자문서화 작업은 박언경 총무이사님과 김태길 사무국장님의 노고와 희생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두 분의 노고와 희생에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법 학자대회에서는 관련 학회와 국제법 관련 실무단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주한 외교관의 참여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자대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신 강준하 연구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월에 ITLOS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해양법 학술대회는 많은 ITLOS 재판관님과 주한 외교관이 참가하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의 일자변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김상걸 기획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법 모의재판은 서면 평가를 1박2일 밤 세워해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제를 맡아주신 오승진 부회장님, 행사를 총괄하신 김성원 부회장님, 실무를 담당하신 오선영 학술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번의 국제법 현안 긴급간담회는 이세련 국제이사님께서 실무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분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승진 부회장님과 김성원 부회장님은 여느 직무이사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학회의 일이 많아, '부회장책임제'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제가 강요하였는데(?), 한마디

불평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성덕 수석부회장님은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작년 학회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올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분 부회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학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학회의 기금적립이 학회장의 의무이고, 적립금의 액수에 따라 학회 집행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적립금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차기 회장님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년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없을 것이라고, 연초 상임이사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적지 않은 액수가 추가 지출되었지만, 2018년 집행부도 적지 않은 액수를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학회장님께 또 부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회장이 기금적립에 부담을 느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학회의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적립의 부담 없이 학회 본연의 활동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회장을 격려하도록 분위기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시절에 만든 게재료 징수 등의 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학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회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조언과 격려는 학회의 저력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더욱 왕성한 활동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6.

서철원 배상